

# ‘재수사’ 세월호...“진실 밝혀져야”

###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 목포신항 추모객 이어져 “책임자 반드시 처벌해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걱정은 되지만 검찰의 세월호 수사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하면서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만을 찾은 추모객들은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했다.

지난 9일 오후 목포신항만을 찾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춰 항만에 거처된 세월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세월호를 바라보던 이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노란리본을 지나가면서 희생자들과 미수습자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내

쉬곤 했다.

추모를 위해 찾은 노인 10여명도 온통 녹으로 뒤덮인 세월호 선체를 보며 묵념했다. 목숨을 마친 이들은 5년 전 안타까운 순간을 회상하기도 했다.

대전에서 온 김귀자 할머니(81)는 “5년 전, 세월호 참사 뉴스를 접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했다. 혹시 손녀는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라며 “세월호와 어린 학생들 사진을 보니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오후 1시, 세월호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자 추모객들은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선체 앞으로 다가갔다.

많은 녹이 슬고 군데군데 파손된 세월호를 본 추모객들은 말을 아끼며 오랜 시간 제자리를 지키면서 세월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부산에서 온 황영선씨(65)는 “희생자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갈지 가슴이 안 간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과연 밝혀질까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특별수사단은 정확한 수사를 통

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왔다는 회사원 이모씨(35)는 “그동안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세월호 가족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각종 사고 원인 등을 규명했으면 한다”며 “책임자들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젊은 남성은 신항만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해 온 노란리본 수십개를 철조망에 묶은 뒤 세월호와 희생자, 미수습자 사진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참사 당시 진도체육관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서동호씨(31)는 “5년 전 희생자 가족들이 생각나 잠깐 눈물을 흘렸다”며 “특별수사단이 출범한다는 기사를 보고 추모 리본을 달기 위해 왔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이번 재수사를 통해 모든 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8일 단장인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비롯해 검사 총 8명으로 구성을 마친 특수단은 11일 출범 임장을 밝힌 뒤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특수단은 진상규명을 위해 참사 원인부터 구조 등 대응과정과 이후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뉴스1

## 지속적 선체손상 세월호...전면보수 못하는 이유는?

### 2기 특조위 침몰원인 등 규명 위해 선체조사 필요 4·16가족협의회 “보존 방안은 진상규명 후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지난해 8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낸 종합보고서에 ‘바닷속에 잠겨 있던 세월호 침몰 배의 겉과 속은 온전치 못했다’고 적었다.

2014년 4월16일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이후 3년 가까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다.

세월호는 물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크게 훼손된다.

인양업체의 준비 부족으로 선수갑판과 선체 내부를 가로지르는 큰 균열이 생겼고, 반잠수선 선적을 위해 선미 램프를 절단하기도 했다.

목포신항만으로 옮겨진 후에는 바닷바람에 노출돼 있다.

검찰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결정한 2019년에도 부식과 같은 선체 손상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보수작업은 하기 어렵다.

선조위에 이어 침몰원인과 구조 활동 전반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4·16세월호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도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조사하는데, 이를 위해 선체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직

2기 특조위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선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순찰, 용역을 통한 안전관리·보수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원과 학생 고(故) 정성수군의 아버지 정성욱씨(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는 “선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해수부가 최근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며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몇 군데 보강하면 큰 문제 없는 상태로 들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선체 보존 논의는 특조위 조사, 특수단 수사 등을 통해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화범 출소 3일만에 불지르다 경찰까지 폭행

방화범이 출소 후 3일만에 또 다시 도심에서 불을 지르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일반물건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택 앞 인도에서 빈 박스 등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 목포 고등학교 매점서 불...담뱃불이 원인

목포의 한 고등학교 매점 외벽에 불이 붙어 22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는 담배꽂이가 여럿 발견됐다.

8일 목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8분쯤 목포시 용당동 모 고등학교 매점에서 불이 났다.

매점 직원과 교사들이 옥외소화전을 이용해 불의 확산을 막는 동안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불은 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매점 건물 외벽 10㎡ 가량이 타고, 체육수업 도중 연기를 마신 교사와 학생들 중 치료를 위한 2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여수 해상 16명 탄 낚시배 줄음운항하다 좌초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안가에서 16명이 탄 낚시배가 좌초되며 낚시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3시2분쯤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학동 해안가에서 9.77톤급 낚시배 A호(승선원 16명)가 좌초됐다는 마을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가 우현 30도 가량 기울어진 상태로 해안가에 좌초된 것을 확인했다.

또 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 14명 전원은 육상에 하선한 상태였으며 선체 파공이나 침수, 해양오염은 없었다.

하지만 낚시객 중 1명이 좌초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 발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여수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A호 선장이 줄음운항 중 해상에 설치된 그물을 피하려다 해안가에 좌초된 것으로 보고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격분 의붓딸 흥기로 찢러

의붓딸을 흥기로 찢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5일 오전 0시께 전북 남원시의 한 주택에서 B양(14)의 복부를 흥기로 찢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라며 자신을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의 어머니인 C씨(55)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C씨는 2015년부터 사실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